

특별취재기사

군산시 수도사업소  
상수도 동파 주의 당부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올 겨울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 계량기 보온 관리 소홀로 계량기가 동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파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노출된 수도관 및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스티로폼이나 보온재 등을 이용하여 수도관을 감싸 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계량기가 복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출입문 또는 창문이 열려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도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해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도가 얼었을 때는 계량기나 수도관을 뜨거운 물이나 불로 녹이면 파열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써 서서히 녹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량기 동파시에는 군산시청 수도과(☎454-5360, 5420)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자 시상식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채정룡)는 지난 20일 군산시보훈회관에서 2016년도 자원봉사활동 우수봉사자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은 자원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봉사자들에 대해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실적을 기준으로 연 4회 분야별(노인, 환경, 문화·공역, 아동·청소년, 학생) 봉사횟수, 봉사시간 최다 봉사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는 ▲노인분야 전해정 ▲아동·청소년분야 채현주, 김도희, 조재연, 김민웅 ▲환경분야 김대선 ▲문화·공역분야 김은정, 유성원 ▲학생분야 조하연, 유예녹 등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이지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정룡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계신 봉사자 여러분께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청소년상담센터 비리 의혹 제기

학원비 횡령 등... 시, 자체감사 실시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신선순) 직원들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익산시가 감사에 나섰다.

21일 익산시는 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제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상담하러 온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원비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공문서 허위작성, 근무일지 조작, 신고절차가 없는 대학 강의, 상담실적 조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근무시간표 조작과 상담실적 허위 표기 외에도 사업 결과보고서 자료와 증빙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의 회계상 문제점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임 의원은 "3년간의 서류를 점검했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특별감사와 그에 따른 결과조치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리를 근절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고 건전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돌입했으나 관리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장화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웠고 형식적인 감사가 진행된 것을 인정한다"며 "정밀감사를 실시해 횡령부분이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고 이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순 센터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용되고 나서 전혀 알지 못 했으며 이번 임형택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알게 되었고 2015년 이전에 벌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면서 임용 후 상담사들과 예정하지 않은 개개인의 생일 파티와 식사 등을 하면서 화합과 단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나 "이러한 비리와 불협화음 등이 발생한 점을 깊이 숙고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발족

네트워크 구축 통한 농촌 활력 불어넣기 위해... '소통 강화할 것'

익산시는 최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한 각 마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익산시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발족식(설립총회)을 가졌다.

익산시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는 농촌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다.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

는 회원 (각 마을)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 경험, 지식 등의 교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은 물론 농촌 관광을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

이번 총회 전 성당 두동편백마을 박귀열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발기인들이 몇 차례 모임을 갖는 등 창립총회를 준비했다.

총회는 협의회 취지 설명 및 임시의

장 선임, 정관 심의 및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초대 협의회 회장으로는 박귀열, 부회장으로는 장두형, 윤형빈, 감사에는 박봉열, 윤길중 씨가 각각 선출됐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박귀열 회장은 "농촌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회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황등농공단지방문 현장행정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0일 황등농공단지를 방문해 입주업체 대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황등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들은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매출감소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가 수입석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석재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폐기물처리에 관한 처리기반 모색, 노후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개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석제품 생산 다변화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현장행정을 통해 제기된 입주업체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황등농공단지가 익산 석재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등농공단지는 1992년 석재업

체들로 구성되어 현재 44개 석재업체가 입주해 운영하고 있으며 익산석재산업 주축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소방서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한마당 행사

군산소방서가 21일 군산시 산업단지 내 (주)S에너지화학 직장자위소방대 화재 등 각종 재난대응 능력 경연대회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직장자위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한마당 행사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군산소방서와 (주)S에너지가 주관해 산업현장 재난안전문화 정착 및 직장자위소방대의 현장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연은 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경연과 소방안전식습을

알아보는 '도전! 119골든벨'로 진행됐다. 특히 119골든벨은 참가자와 응원단이 생활 속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직장 내 재난발생 시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자위소방대의 초기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두 번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익산시, 코아바이오와 입주계약

익산시는 지난 20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외국인투자신고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발효음료 생산기업인 (주)코아바이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지역에 2만3,140㎡ 규모의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설립된 한라함작회사인 (주)코아바이오 황진수 대표이사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발효음료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450만 달러를 투자해 내년 2월 착공

에 들어가고, 하반기 본격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 기업의 자본투자를 받았고, 미국기업 (캐피탈폼부차)과는 자본투자 및 함께 기술투자 협약을 마쳤다.

(주)코아바이오가 입주하게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은 외자유치 유치를 위해 작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지정됐다.

입주 기업은 토지 취득가액 1% 수준의 연간 임대료로 50년간 사용 가능하고, 투자·고용규모, 국내 원자재 사용 등 요건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적십자평생대학, 2016년 2학기 종강식

군산적십자 평생대학(학장 최용희) 2016년 2학기 종강식이 21일 한원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날 종강식에는 한창범 이사장을 비롯해 최용희 학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전북 대한적십자사 이건웅 사무차장, 한원컨벤션 김금옥대표 및 300여명의 지역 평생대학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범 이사장과 금호환경 이지태 대표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 금장상을 전달하고 60명의 학생들에게 개근상을 수여했다.

군산적십자평생대학은 평생대학 학생들에게 알 권리 충족과 여가선용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복지분야의 전문 지식인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노래교실, 무용교실,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르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and text: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Includes logos for DreamHub GUNSAN and GUNSAN CITY.